

나경원 전 국회의원 vs 박영선 장관

TV조선 '아내의 맛' TTA 데이터로 본 시청자 반응

글 민경숙 | TNMS 대표, 매스커뮤니케이션 박사
min.gs@tnms.tv

통합시청자 수 TTA 데이터를 통해 TV 프로그램의 경쟁력 평가를 분석하는 한편, TTA 데이터의 세부항목인 분 당 시청자 수 추이 변화를 통해 출연자들의 인기 정도도 평가 할 수 있어 TTA 데이터는 다스크린 시대에 매우 유용한 데이터로 사용 되고 있다.

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전 국회의원과 박영선 장관이 1주차 간격을 두고 1월 5일, 1월 12일 TV조선 '아내의 맛'에 각각 출연해 자신들의 생활 일상을 공개했다. 두 사람 모두 각 방송에서 다른 연예인들 방송 분량을 제치고 최고 1분 시청률 주인공을 차지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받았다. 본방 최고 1분 시청률 (TNMS, 유료가구)에서 나경원 전 국회의원은 10.1%, 박영선 장관은 8.0%를 기록했다. 박영선 장관이 나경원 전 의원 보다 2.1% 포인트 낮았다. 시청자 수로는 71만명이 작다. 나 전 의원이 박 장관 보다 앞서서 본방 최고 1분 시청률의 흐름은 재방송에서도 같았지만 VOD에서는 박 장관이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 본방송과 재방송에서 크게 앞 선 시청자 수를 가진 나경원 전 의원은 최종적으로 TTA 통합시청자 수 전체에서 595만명 vs 박영선 장관 470만명으로 박 장관 보다 125만명 앞섰다. ㉠

그림 1 | 아내의맛 TTA (단위 : 만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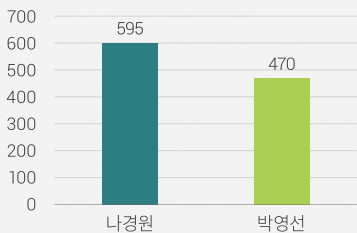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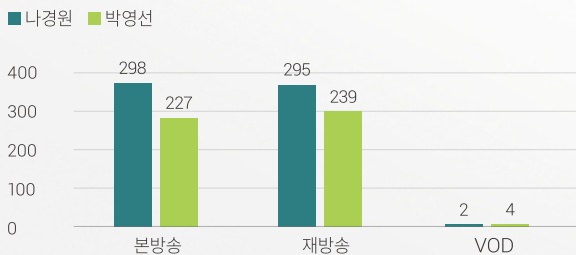


그림 2 | 아내의맛 : 본방송, 재방송, VOD (단위 : 만명)



*출처 : TNMS